▪ 교회소식 ▪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신임원교육** : 중구용산지방회에서 주관하는 신임원교육이 오늘 오후 4-9시 한남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25,000원입니다. (주차는 한남역 앞 공영주차장과 교회 뒤 홈런주차장 이용, 유료)
3. **성탄 축하** : 다음 주일(24일) 오후 1:30 대예배실에서 교회학교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 시작 전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4. **성탄절 예배** : 25일(월) 오전 11시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5. **송구영신** :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주일) 저녁 7:30에 있습니다.
6. **결혼** : 조승 씨와 손다은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3일(토)오후3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7. **달력** : 2018년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세요.
8.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 : 2016년 기부금영수증 신청자 중에 주소가 변경된 분, 2017년에 새롭게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실 분은 기부금영수증 신청서를 꼭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주차봉사** : 2018년 공영주차장 안내봉사는 올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 합니다. 새롭게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사랑의 저금통** : 일전에 나누어 드린 사랑의 저금통을 성탄절까지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모은 동전은 선천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 떡대접 : 김신실 이순용

다음 주 설교 본문	고전 16: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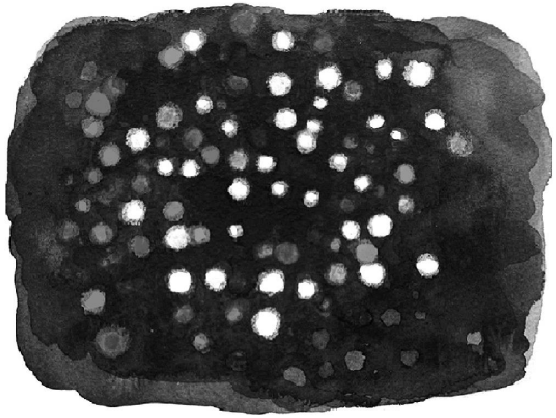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장영숙	이왕준

	1부 영접위원	강세기	**헌금위원**	이소애
12월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송형운 추헌영 이동천 하미림 박진숙		
	2부 헌금위원	장원호 김경혜		

오늘 식당 봉사	청파 찬양대		
다음주식당봉사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최광희 박준민 이경준 김정우		
오늘설거지봉사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청파7속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홍윤선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제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기쁨의 초'에 불을 밝힙니다. 주님, 힘겹게 살아가며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쁨의 기운이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새날을 향한 소망 속에서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위해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추위 속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겨울밤을 보내야 하는 이, 온종일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 집도 없이 떠도는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그들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겔 34:16 ····· 인도자

▲ 교 독 문 ····· 117. 구주강림(3)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김재흥 목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98. 예수님 오소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요 1:29-34 ····· I. 인도자 II. 김성우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거룩하신 왕 II. 온 땅에 주의 영광이 ····· 마중물찬양대 참빛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요한 원은이 고숙이 구재원 국지연 김근종 정옥영 김남종 오복순 김명하 오영일 김명희 김병대 김성순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박정숙 김정기 김정민 이혜령 김종락 박영신 김중현 성귀옥 김지호 전혜리 김지훈 김진옥 김태정 김혜영A김훈동 유경순 박기영 신영욱 박범희 박미영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박인혁 박창운 허정윤 방 민 방 준 서수진 서이순 송인선 신영욱 안성호 김희숙 오진훈 노순옥 우경환 유지은 윤성종 김윤정 윤영미 은종인 이경남 이국노 김민화 이부곤 이완구 이왕준 송상경 이응석 이은경 이진영 한양미 이현주 이현죽 이고임 임성택 홍순위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송양진 주은경 최미경 최 숙 최영민 최옥자 최윤선 최윤화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하현일 김광우 한훈식 권채영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혜린 김반야 김성수 김영란 김용태 박정숙 김중수 이순정 박소원 박진주 방경선 변종복 유수진 이건호 김보민 이고임 이광재 이상도 이유일 김미희 이재삼 전정현 이지하 임광호 임은영 임종수 임혜진 전성재 정학성 김현숙 조옥분 진선영 최영민 최형서 최혜정 한상수 남해린 감청전국연합회동지회 무명5

염정훈 최미경(결혼) 이재문(건강회복) 조호진 최승주(큰아들 졸업 및 결혼)

생일감사헌금 오복순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영호 윤미경 윤수진 이고임 한선희 임설희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동행

- 김종연

너는 한 방울 물로 자라나는 종유석

석순처럼 말없이 나는 기다리고

그 모습 지켜보느라 세상도 슬로모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 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쳐 나길 원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 주 은혜 찬양하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되길 원해
주 은총 받은 자녀들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라
악하고 추한 것 모두 주의 이름에 무너지리
상하고 눌린 모든 영혼 은혜로 회복되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쳐 나길 원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 주 은혜 찬양하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되길 원해
주 은총 받은 자녀들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라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쳐 나길 원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 주 은혜 찬양하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되길 원해
주은총 받은 자녀들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 씀 …… **세례자 요한의 증언**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크리스마스 팝스 …… 최성애·홍순복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욕망과 탐욕의 나라를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헛되고 그릇된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

너무 빤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게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든,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중에는 이런 행위를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로 여기고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잘못은 했지만 반복하지만 않으면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니, 상대방에게 죄를 꼭 고백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 톨스토이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용서해서 얻은 마음의 평화는 '영혼의 죽음'에 다름 아니라고 쓴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평화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죄책감은 은밀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밖에 꺼내놓으면 힘을 잃는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곤 한다. '어리석은 선택이나 멍청한 실수를 꼭 드러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더 심해진다. 그러면 죄책감에 죄책감이 더해지고, 우리는 결국 죄책감에 짓눌려 옴짝달싹 못 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수십 년 또는 평생을 괴로워하며 산다. 1991년 2월 3일, 한국 전방의 한 부대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에 연루된 이들도 20년 가까이 과거의 기억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 남 씨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남 씨의 몸에 멍 자국과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발견되었지만, 타살로 볼 만한 증거는 없었다. 내무반의 동료들은 헌병대 조사에서 남 씨가 자살을 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이 사건은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남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남 씨의 가족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남 씨는 늘 밝은 얼굴로 최선을 다했고 대학에서는 통일 운동에 열정을 다했었다. 방학 때는 학비를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할 정도로 체력과 의지도 강했다. 가족과 학우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군은 장례를 치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 일로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 이웃의 수군거림에 남 씨 가족은 그해 10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서둘러 이사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은 부모의 가슴에 큰 아픔을 남겼고, 남 씨의 어머니는 심장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진실은 침묵하지 않았다.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자 남 씨의 가족은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2009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남 이병이 부대 구타 관행의 희생자였음을 밝혀냈다.

당시 남 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휘관 두 명과 동료 두 명이 뒤늦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많은 힘이 되었다. 20년 가까이 속에 감춰두었던 진실을 밝힌 것이다. 동료 병사였던 홍 씨는 위원회에 이렇게 말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어 미안한 마음입니다. 유족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더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남 씨를 구타한 적이 있는 김 씨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이 일로 오라고 할 때마다 고인을 구타하고 가혹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용기를 내서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남 씨의 형이 이렇게 말했다. "동료, 상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해하고 용서하기는 유가족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빌 수 있는 용기가 고맙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처도 컸지만, 누구 하나 죄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가족은 더 상처가 깊었다. 군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상처 입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다. 남 씨의 군 동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죄했다고 해서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유가족이 그들을 한순간에 다 용서할 수는 없다. 이제 겨우 첫발을 뗐을 뿐이다. 그러나 용서를 구한 이들이 털어놓았듯이 지난 20년 가까이 갇혀 있었던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왜 용서해야 하는가」(포이에마) 중에서